

민중당에서의 주권연대 패악질

자주평등통일0615

- 중앙당과의 협의없이 윤석열 장모, 윤석열 탄핵, 조국수호 등을 운운하는 등 민주당의 의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승하여 당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킴.(이 행동으로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지지자들의 표를 잃었다는 분석이 많다)

- 미통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 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파란색 피켓과 '당선가능한 후보'라는 구호를 사용하여 당내에서 물의를 일으킴.

- 그 외 등등

주권연대의 이런 패악질로 인해 민중당 당내의 많은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상술한 악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김은진 공동대표는 당기위와 윤리위원회에 제소됨과 동시에 수많은 당원들이 출당 요구를 하였고, 일부 당원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다.